나주 전통주 경쟁력 입증…청년 양조장 2곳 나란히 수상

청년 양조인들이 빚은 나주 술 주목



탁주 부문 인기상을 받은 달가림의 대표 제품 '월하주'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위치한 청년 양조기업 2곳이 '2026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나란히 받으며 지역 전통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역 주류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페어리플레이(대표 이송미)와 달가림(대표 이슬기)이 최근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2026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품평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가 주관했으며 25개 업체에서 출품한 43개 제품이 참가해 품질과 경쟁력을 겨뤘다.

이번 품평회에서 페어리플레이의 '이제:배로 만들다'는 기타주류 부문 최우수상과 비탁주 부문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고 달가림의 대표 제품인 '월하주' 역시 탁주 부문 인기상을 받으면서 올해 인기상이 수여된 탁주와 비탁주 2개 부문을 모두 나주 지역 양조기업이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페어리플레이의 '이제:배로 만들다'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나주배를 활용한 지역 특화 주류의 품질과 경쟁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페어리플레이는 30대 청년 여성 기업인 이송미 대표가 운영하는 주류제조기업으로 나주시 남고문로에 위치한 양조시설에서 나주배를 활용한 한국형 페리(Perry)를 생산하고 있다. /서성택 기자

담양,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지난 11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과 알레르기질환 환아 등록·관리 등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담양군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비롯해 알레르기질환 환아 등록·관리, 보습제 지원, 천식 응급처치용 구급함 비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힘써왔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맞춤형 교육 및 생활공간 중심의 교육·홍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제31회 농업인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난 11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회랑에서 화순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로 '제31회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화순군 농업, 함께 성장하는 농촌'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13개 읍·면 농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화순군 농업 발전에 기여한 21명에게 표창패와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경품추첨과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농업인의 날 맞아 농업인 학습단체 한자리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농업인의 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1일 국민실내체육관에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간 화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농업인의 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촌지도자영광군연합회(회장 황봉석)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생활개선영광군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영광군연합회, 한국4-H영광군본부, 영광군4-H연합회 등 6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 시상과 기념식, 학습단체 축하공연, 화합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학습단체 간 소통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행사와 연계해 농업인 학습단체의 과제활동 성과물과 으뜸농산물을 전시해 한 해 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모싯잎송편, 보리 신품종, 쌀 품질관리, 병해충 방제, 유용미생물 등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연구·기술지원 성과 등을 전시했다.

아울러, 쌀 식미평가를 함께 진행해 쌀의 밥맛과 품질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역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품종 선택의 중요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날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와 전남연합회는 각각 고향사랑기부금과 재난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진 기자

장성군에 불어오는 '숲의 바람'… 목재 문화 선도

김한종 군수 "장성의 경제·문화 중심지 자리매김할 것"

대한민국 대표 치유 여행지인 축령산 편백숲을 보유한 장성군이 목재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기술위원회 회의를 갖고 전시 및 체험 콘텐츠 설계와 제작,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들은 실내 전시물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안정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이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황룡강 인근(장성읍 영천리 1688-27) 대지 면적 3303㎡, 바닥 면적 655㎡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실내 놀이터와 교육장, 체험실, 다목적실, 전시실, 북카페 등을 갖춘다. 사업비 규모는 총 52억 원으로, 2029년 무렵 준공할 예정이다.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도 '목재'를 주제로 추진되고 있다. 장성군은 2024년 말, 7년 간의 끈질긴 도전 끝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지에 선정됐다. 국비와 시비, 군비 포함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까지 영천리 대창동 일원에 브랜드 거점 구축 및 정주 환경 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설계 사진 /장성군 제공

브랜드 거점 구축은 '편백큰푸름센터'와 '창의목공예센터' 건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8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편백큰푸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에 로컬 레스토랑, 생태교육장, 편백체험실, 큰푸름편백몰, 액티비티 가든 등을 갖출 계획이다. 장소는 대창1공영주차장 인근이다.

'창의목공예센터'는 장성읍 일원(영천리 909-1)에 대지 면적 1720㎡, 바닥 면적 640㎡ 규모 2층 건물로 건립될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